

“옛사람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느끼세요”

‘오주석의 한국의 미 특강’

오주석 지음
솔 출판사 / 1만5천원

21세기는 문화의 세기라고들 한다. 세계적인 문명비평가인 프랑스의 기 소르망은 수년전 우리나라의 한 강연에서 “문화란, 한마디로 경제적인 자산이다”라고 했다. 실용주의적 입장에서 본다면 당연한 귀결이다. 하지만 한 민족에 있어 문화란, 돈의 가치를 뛰어넘는 그 무엇이다. 바로 정신, 문화에는 민족의 정신이 깃들어 있다. 그 정신을 우리는 얼마나 제대로 알고, 오늘에 계승하고 있는가. 우선 문화 그 자체를 바로 볼 줄 알아야 한다.

<오주석의 한국의 미 특강>은 바로 우리 예술의 아름다움에 대해 바로 알고, 감상하는 법에 대해 이야기 한다. 강의하듯 이야기체 형식으로 전개되는 이 책의 필자는 서울대 동양사학과와 동대학원 고고미술사학과를 졸업하고, 국립중앙박물관과 호암미술관에서 12년 동안 큐레이터로 일했으며, 현재 간송미술관 연구위원으로 있는 오주석 씨다. 이 책에서 저자는 친절하고도 깊이 있게 우리 문화를 이해하는 새로운 시각과 사고의 틀을 제시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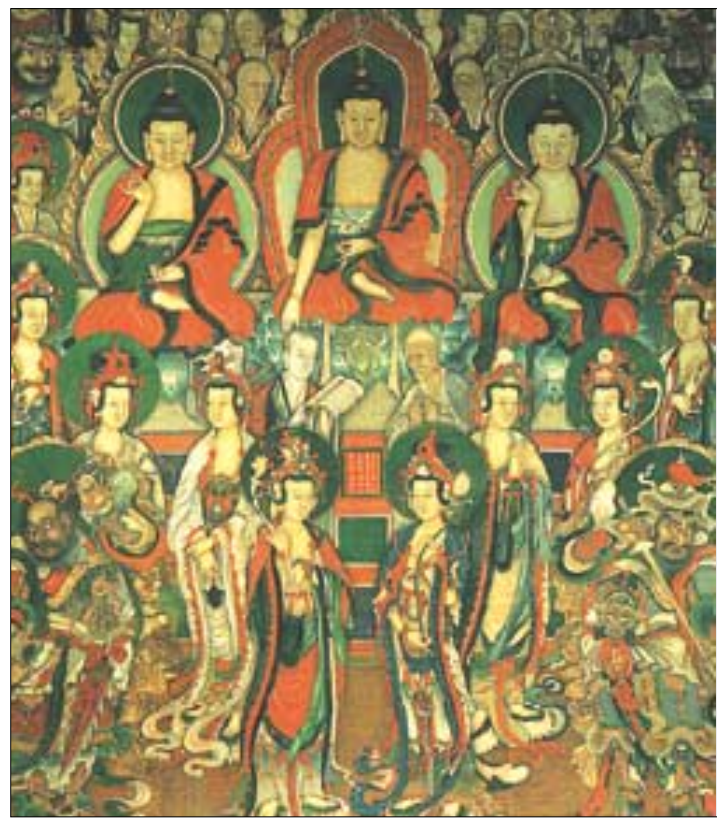
이 있게 우리 문화를 이해하는 새로운 시각과 사고의 틀을 제시한다. “옛 사람의 눈으로 보고, 옛 사람의 마음으로 느끼다.” 저자가 말하는 옛 그림의 감상의 핵심이다. 특히 우리 그림을 감상할 때 오른쪽 위에서 시작해서 왼쪽 아래 방향으로 쓰다듬듯이 보는 것이 작가의 시선과

우리 예술 바로 알고 감상하기 안내서

“옛그림 볼 때 오른쪽 위서 왼쪽 아래로”

만나는 좋은 길이 될 것이라고 조언하는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산수를 여행할 때 자연을 마음속에 받아들이고 맑은 공기를 호흡하듯 그림 역시 열린 마음으로 애정을 갖고 감상하는 것이 기본이라고 지적한다.

저자의 강의 한 부분을 들어보자. “고구려 고분벽화를 잘 보려면 거기 깔려 있는 도교 사상과 조상들의 토착신앙을 알아야 하고, 고신라구



◇탱화는 세계 구석구석까지 스며든 부처님의 가르침을 화려한 회화로 표현한 것이다. 김홍도 작 '삼세여래체탕' (경기도 화성 용주사 소장).

新羅) 이래 천 년 불교 왕국 동안 만들어진 불교 문화재의 감상은 당시 사람들의 불교적 심성을 이해해야 가능하고, 또 조선시대 그림은 성리학의 영향 아래 만들어진 작품인 만큼 사삼경 정도는 대중 이해하는 교양이 있어야 그림의 진정한 뜻이 보인다. 큰 절에 가서 불화를 보세요. 정교한 선과 눈부신 채색으로 그려 낸 갖가지 형상이 거대한 화폭을 빈틈없이

메우고 있습니다. 동양화는 여백이 특징이었는데, 탱화는 왜 이렇게 화면을 가득 채워 그렸을까요? 불교적인 세계관에 의하면 온 세계 구석구석까지 스며든 부처의 깨달음, 그 진리로 우주가 화려하고 장엄한 세계를 이루고 있기 때문입니다!”
문화는 꽃이며, 선인들의 과거를 성실하게 배워 발전적인 미래를 이어가는 재창조의 발판이다. 저자는 이 책에서 우리의 삶 그 자체가 아름다워야 아름다운 오늘의 문화를 꽃피울 수 있다면서 우리 문화를 제대로 이해하고, 새로운 문화 창출을 위해 노력할 것을 당부하고 있다.
이은자 기자 ejee@buddhapia.com

인디언 스승들의 가르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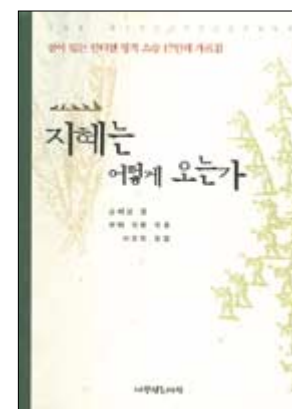
<지혜는 어떻게 오는가>는 인디언 스승들의 삶과 정신과 자연철학을 찾아 떠나는 아주 특별한 영적 여행이다.

내셔널지오그래픽 기자인 스티브 윌과 하비 아든이 인디언 부족들 안에서 뿐만 아니라 백인 사회에서도 가르침으로 존경받는 살아있는 스승들을 찾아가 10년 동안 직접 인터뷰하고 함께 생활하며 들은 생생한 지혜의 말씀을 고스란히 기록했다.

우테족 주술사 찰리 나이트, 라코타의 의장이며 영적교사인 프랑크 바보까마리, 세네카족 추장 코버트 해집, 호족의 영적 교사 리라 피셔, 모호크족 추장 톨 포터 등 인디언 어르신 열일곱 명의 인생 역정과

‘지혜는 어떻게 오는가’

스티브 윌 · 하비 아든 지음
나무심는 사람 / 1만2천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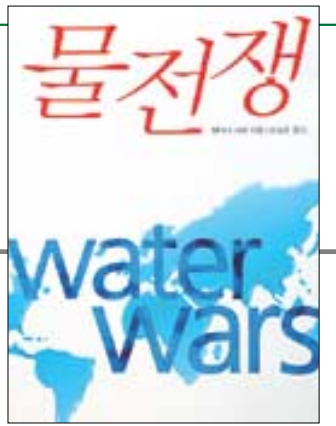
그들이 토해내는 이야기들은 지혜를 잊은 현대인에게 전하는 영혼의 메시지이다.

인디언 스승들의 당당한 모습과 심오한 말씀에서 우리는 그들의 속 깊은 생각과 감정, 꿈과 이상, 농담과 웃음, 치유법과 묵시론적인 예언을 함께 만날 수 있다.

“우리는 대지의 일부분이며, 대지 또한 우리의 일부분이다. 들꽃은 우리의 누이이고, 사슴, 말, 얼룩말 수리 이 모든 것들은 우리의 형제이다. 바위투성이의 산꼭대기 강의 물결과 초원에 핀 꽃들의 수액, 조랑말과 인간의 체온 이 모든 것들은 하나이며 모두 한 가족이다.” 수쿠아미족 추장 시애틀 이은자 기자

‘물전쟁’

반다나 시바 지음 / 이상훈 옮김
생각의 나무 / 1만2천원



물의 신성·소중함 다시 깨닫게

인도의 생태운동가로서 집요운동을 이끈 이로 잘 알려진 반다나 시바의 생태주의 입장에서 바라 본 <물전쟁>이 출판되었다. 생명의 물이자 모든 생명의 공공재인 물이 신자유주의 세계화 속에서 사유화되면서 나타나는 지구적인 문제와 지역과 주민의 문화전통이 파괴되어 가는 문제를 예리하게 분석하고 이를 해결하는 대안을 생명의 원리와 생태주의적인 입장에서 찾는 책이다. 이 책을 통해 다시금 물에 갖든 신성한 어머니를 만나고 그 어머니의 생명의 젖줄이 모든 생명을 순환시키고 연결하여 관계 맺게 하고 비로소 생명으로서 더불어 살아간다는 것을 다시금 깨닫게 된다.

미국의 이라크에 대한 침공이 압박해지면서 전세계 반전운동이 불길처럼 타오르고 있다. 인류의 생명을 담보로 벌어지고 있는 또 다른 전쟁의 한 면은 바로 ‘물 전쟁’이다. 세계 인구의 10억 명이 깨끗한 물을 먹지 못하고 어린이와 같은 사회적 약자는 오염된 물로 죽어가고 있는 현실이다. 이러한 현실을 전장으로 물가에서 그 전쟁관에서 이익을 쟁기는 것이 다국적기업이다. 다국적기업이 물 시장에 뛰어들면서 다양한 나라와 지역에서 자치적으로 관리하고 공유하던 물은 다국적기업의 소유로 넘어가고 이들에 의해 수돗물이 민영화되면서 물 값은 치솟고 수질은 점점 나빠지고 있다.

물 부족, 평화·생태적 해결방안 제시

물은 하늘이 준 선물이지 상품이 아니다’는 시민들의 의지와 참여로 물 민주주의를 이루어낸 것이다. 지금 지구상에는 4만 5천 여 개의 대형 댐이 있다. 중국 2만 2,000개, 미국 6,390개, 인도 4,000개, 일본 1,200개이고 우리나라는 765개의 대형 댐이 있어 세계 7위에 이르고 있다. 세계 댐 위원회는 이러한 수많은 댐이 만들어지면서 4,000만에서 8,000만 명의 수몰민이 발생하여 고향을 잃고 강제 이주되었다고 한다. 그리고 댐 건설을 반대하는 주민들은 엄청난 폭력에 직면하고 심지어 살해당하고 있다. 이 책의 저자가 말하듯 대량살상무기와 다름없는 댐으로 삶의 터전을 잃은 무고한 시민이말로 다국적기업, 세계무역기구 등과 같은 테러리스트에 의한 테러의 희생자인 것이다.

세계 규모의 댐을 보유하면서 현재 건설 중인 댐의 40%가 인도에 집중되어 있다. 인더스강, 갠지스강, 히말라야 등 신성이 깃든 인도에서 다국적기업이 벌이는 물 전쟁으로부터 자연의 어머니를 지키고 물 민주주의를 쟁취하는 생명운동은 깊은 문화전통과 생명의 힘으로 부터 나올 것이다. 이 책은 물 전쟁의 현

상에 대한 구체적인 사례와 분석에 머물지 않고 평화적이고 생태적인 해결방안을 전통적인 지혜로부터 제시한다. 자연자원과 유지해 온 관계성을 존중하고 전통적인 자원관리 방법과 조화를 이루는 등 권한을 지역공동체에 부여한 인도의 판차야트비이나 전통적인 물절약 기술과 지혜, 그리고 영국의 식민주의자들도 감탄했다는 수백개의 물저장소를 그들만으로 연결한 물관리 시스템 등은 생태적 그들만으로 살아 가야 할 지구의 오래된 미래로 잘 보여주고 있다.

“거룩한 어머니 갠지스강, 힌두신화에 의하면 갠지스강은 하늘로부터 흘러 내린다. 갠지스강은 하늘로부터 내려왔기 때문에 하늘에 이르는 거룩한 다리가 된다. 신성한 물은 시장을 넘어서 우리를 신화와 설화로 가득한 세계로 이끈다. 이러한 세계는 우리에게 물을 절약하고 공유하게 만들며 부족한 물을 변화시켜 풍요로운 물로 만든다”

그렇다. 물은 순환할 때 풍요로워지고 모든 생명에게 형평하게 공유되고 나누어진다. 물전쟁으로부터 지구생태계와 인류가 살아갈 길의 지혜인 것이다. ■김제남 / 녹색연합 사무처장

<물전쟁>은 세계적 환경주의 사상가이며 행동가인 반다나 시바가 쓴 책이다. 지역, 종교, 민족 간 대립으로 보이는 전쟁의 본질은 물이며, 물이 마르고 있는 지금이 바로 물에 관한 새로운 패러다임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우용 크스님 법문집 불자의 살림살이

무엇을 믿고 어떠한 삶의 길을 걸을 것인가
참된 불자의 살림살이는 무엇인가

- I 부처님을 믿는 불자
- II 불자의 정 · 부처님의 자비
- III 불자를 기쁘게 하는 불자
- IV 불자의 길 · 불자의 삶
- V 평온과 지혜가 깃든 삶

4x6판 / 값 3,500원

‘불자의 살림살이’는 스스로를 살리고 주위를 살리는 삶을 살면서 행복과 깨달음의 자리로 나아가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함께 생각해보기 위해 쓴 글입니다. 아울러 행복을 얻는 원리, 가족 사랑의 원리, 기도성취의 원리 등 불자들이 꼭 알고 새겨야 할 삶의 원리를 밝히고자 하였으며, 생활 속에서 가정의 평화를 이루고 참불자가 되고 불성을 개발하는 법에 대해서도 부처님의 가르침에 입각하여 정립해 보았습니다. - 저자 서문 중에서

행복을 여는 부처님의 가르침

행복한 삶에 꼭 필요한 덕목들에 대한 법문집!

헤인 크스님 지음
4x6판 / 값 3,500원

부모님의 은혜, 인과법칙과 마음씨, 참회 · 심심 · 구업(口業) · 보시 · 인욕 · 일법수행(一法修行) 등 불자들이 참되고 행복한 삶을 사는 데 가장 필요하면서도 실천하기 어려운 문제들에 대해, 부처님의 말씀을 응용하고 대입시켜 부드러우면서도 명쾌하게 그 해결책을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크스님의 주옥같은 법문집

불교신행의 주춧돌

우용 크스님 / 값 5,000원

불교! 어떻게 믿고 실천해야 하나?
일평생을 수행과 중생교화를 위해 살아오신 우용크스님의 불교신행 지침서. 신생활 속에서 자주 겪게 되는 시행착오를 미리 피하고, 올바른 정진을 하여 깨달음의 세계로 나아가는데 꼭 필요한 마음가짐과 수행방법 등을 자상한 문제와 일화들로 알기 쉽게 엮었습니다.

- I 지성(正信)으로 살자
- II 불자의 살림살이
- III 불자의 축원
- IV 불자의 기도
- V 일체교역을 벗어나는 길
- VI 불교신행의 주춧돌

김현준 지음 / 값 5,000원

바보가 되거나 (평용크스님의 일대기와 사상)

어리한 지혜의 눈과 깊은 자비심으로 모든 이의 자유로운 삶을 일깨웠던 평용크스님! 이 책을 펼쳐들면 가장 가까운 곳에서 우리를 살아 움직이게 하는 이 시대 최고의 진솔한 대도인을 만날 수 있게 됩니다.
김현준 지음 / 값 5,000원

시작하는 마음

보조국사의 《초심》을 자상한 법문과 많은 이야기로 풀어 엮은 이 책을 펼쳐들면 누구나 쉽게 불교의 세계 속으로 물입할 수 있게 됩니다. 이 책과 함께 진리를 향한 것들을 옮겨 보십시오.
일타 크스님 지음 / 값 7,000원

부드러운 말 한마디 미묘한 향이로다

일타 크스님의 대표적인 법문집
부처님의 말씀을 보다 쉽고 가깝게 대중들에게 전하셨던 스님께서는 고된 삶의 길 위에서 흔들리고 방황하는 모든 이들에게 새로운 세계로 향하는 문을 열었습니다. 법의 향기 가득한 크스님의 말씀, 삶의 지표로 다시금 세우보십시오.

- I 무엇을 위해 살 것인가
- II 복된 삶을 이루기 위하여
- III 배움의 삶
- IV 밝은 삶을 여는 계를
- V 자기를 돌아보는 공부
- VI 화두 드는 법
- VII 마하인아라할

일타 크스님 / 값 5,000원

아! 일타 크스님

일타크스님의 일대기. 얼굴에는 미소를, 가슴에는 태양을! 소설보다 더 재미있고 극적인 크스님의 수행담을 읽다보면 기도 · 참선 · 경전공부의 방법을 체득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비보살 일타크스님과 함께 함을 느낄 수 있게 됩니다.
김현준 지음 / 값 5,000원

영원으로 향하는 마음

원효대사의 《발심수행장》을 해설한 일타크스님 특유의 구수한 문체로 해설해 놓았습니다. 이 한 권의 책은 영원한 삶의 비결과 행복하게 사는 방법을 스스로 터득하게 해 줄 것입니다.
일타 크스님 지음 / 값 6,000원

불자의 마음가짐과 수행법

일타 크스님의 유교 법문집
모든 불자들이 큰 행복과 대자유를 얻기 위해서는 어떠한 마음가짐으로 살아야 하며, 참선 · 염불 · 간경 · 주력의 불교 4대 수행법을 어떻게 닦아야 하는가를 갖가지 비유를 들어 자상하게 설하고 있습니다.

- I 원망하지 않는 삶
- II 인연따라 복을 지으며
- III 구하는바 없는 불사
- IV 불법 속에서 사는 불자
- V 행복과 해탈을 먹는 오개장
- VI 참선과 염불
- VII 간경과 주력

일타 크스님 / 값 5,000원

감로법문 (일타 크스님의 육성법문테이프)

듣는 것만으로도 깨달음의 세계에 젖어들고 환희심이 일어나는 일타크스님의 법문!

크스님 살아오신 이야기 (테이프 1·2)
마음 · 마음 · 마음 (테이프3)
오분함을 이루는 공부 (테이프4)
참된 회향 (테이프5)

5개1세트 / 값 12,000원

자기를 돌아보는 마음

구구절절 게으름과 방종을 막는 말씀으로 가득한 야운스님의 《자경문》을 해설한 책. 인간이 방황하고 윤회하는 까닭, 나를 찾는 요법, 해탈을 이루는 비결 등 부처님 가르침의 핵심을 담고 있습니다.
일타 크스님 지음 / 값 6,000원